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鄭允又
印刷人 鄭方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善
編輯部長 李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不欺不怒,
意不求多,
如是三事,
死則生天.

속이지 말라, 성내지말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마라, 이 세가지를 법다이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法句經>

# 79億百萬원 規模 豫算大幅 增額

## ——今年度 護國團 豫算案 確定

## 學術行事에 중점編成 合理的 運用·決算公告 必要

## 昨年比 48.8% 늘어

79학년도 학도호국단 예산은 작년도의 3천원보다 약 48.8%가 대폭 증액된 총 5천3백만 13만5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9일 호국단운영위원회(위원장=金銀億·경영 4) 에서확정 발표한 금년도 예산을 세분해 보면 각 대대별 이 총1천1백84만7천3백60원 각 部別 예산이 2천8백55만3천9백원, 경주대학이 1백41만4백원, 기타 써클보조비등에 1천1백32만3천3백40원으로 되어있다。금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된 총 5천3백만원은 전년도 당연금 결과로 보이며 각연합회 및 校舍擴張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학년도부터는 경주대학 신설 및 2부대생 증원등으로 호국단비를 인상, 전체 호국단예산 총액이 크게 증액되었다。

각 대대별 예산은 대대별 활동실적과 자적학생수에 비례하여 편성되었으며 각 부별 예산은 東國憲典, 敎大學大대 (대대장=徐鈞浩·술가 4) 에서는 종교피리 및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佛學大대 (대대장=崔炳國·물리 4) 에서는 학술지발간과 초청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經商大學대대 (대대장=李榮夏·무역 4) 에서는경영학과 학술강연회, 졸업기념 및 송년회가 있으며 문리과대학대대 (대대장=申炳國·물리 4) 에서는 학술강연회, 졸업기념 및 송년회가 있으며 또한 校舍擴張에 따른 당연금 결과로 보이며 강연회등 각종 學術事業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각종 강연회등 행사별로 주관부서에 한당하였고 써클보조비는 써클지도교수 회장등의 간담회와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각 대대별 예산이 지출될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佛敎大學대대 (대대장=徐鈞浩·술가 4) 에서는 종교피리 및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佛學大대 (대대장=崔炳國·물리 4) 에서는 학술지발간과 초청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經商大學대대 (대대장=李榮夏·무역 4) 에서는경영학과 학술강연회, 졸업기념 및 송년회가 있으며 문리과대학대대 (대대장=申炳國·물리 4) 에서는 학술강연회, 졸업기념 및 송년회가 있으며 또한 校舍擴張에 따른 당연금 결과로 보이며 강연회등 각종 學術事業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79학년도 護國團 豫算 <단위 : 원>

| 사업별 과목 | 예산 금액 | 부서별 부서 | 예산 금액 |
|---|---|---|---|
| 단발간지비 | 8,038,900 | 불교대학 | 1,128,320 |
| 써클보조비 | 5,313,500 | 문리대학 | 1,410,400 |
| ROTC보조비 | 400,000 | 법정대학 | 1,128,320 |
| 운영비 | 4,653,160 | 경상대학 | 1,410,400 |
| 회의비 | 1,975,000 | 농업대학 | 1,128,320 |
| 활동비 | 2,020,000 | 공과대학 | 1,692,480 |
| 행사비 | 23,484,600 | 사범대학 | 1,310,400 |
| 홍보비 | 2,420,000 | 2부학생대대 | 1,410,400 |
| 미화비 | 970,000 | 여학생대대 | 1,128,320 |
| 응원비 | 3,188,100 | 경주대학 | 1,410,400 |
| 예비비 | 671,740 | 예비비 | 140,000 |
| 총계 | 53,135,000 | 계 | 13,397,760 |
| | | 무보직부서 | 9,525,000 |
| | | 종문지도부 | 9,098,900 |
| | | 훈련부 | 790,000 |
| | | 체육부 | 3,100,000 |
| | | 학생처 | 1,100,000 |
| | | 교무처 | 2,800,000 |
| | | 총무처 | 1,140,000 |
| | | ROTC보조 | 1,000,000 |
| | | 보직수당 | 400,000 |
| | | 써클보조 | 600,000 |
| | | 홍보비 | 5,313,500 |
| | | 미화비 | 3,188,100 |
| | | 응원비 | 1,010,000 |
| | | 예비비 | 671,740 |
| | | 계 | 39,737,240 |
| 총계 | 53135000 | | |

# 23日부터 中間考査

## 全學年 대상, 1週間 實施

79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가 교련및 실습과목을 제외한 전 학년 실기과목을 제외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실시된다。

교무처(처장=李昌植박사)에서 확정, 발표한 중간고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는 교생실습에 몰두 참석해야하는 사대 4학년과 교직과정이수자가 많은 문리대 4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학교당국에서는 他大學 교직이수자에 대해서는 敎生實習후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험일정은 추후 발표 한다。

한편 교무과에서는 『이번 고사기간중에는 학생들필히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자세한 시간표와 일정은 내주중에 게시 발표될예정이다。

敎育大學院 학생회(회장=張炳根·윤리교육전공) 주최 「교직답사및 야외세미나」가 지난 8일(日) 鄭在覺·金鍾遠원장 및 高曾 書道展을 가졌 예술과 취미전 관계 교직 총장을 비롯한 관계 교직 원과 신입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늘봄농원에서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알두고 행한 이번 답사에서는 인근지역의 고적답사와 세미나가 있었으며 또한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韓國敎育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축연도있었다。

「교직답사및 야외세미나」에서는 釋林 趣味展 준비 및 釋林會(회장=朴眞覺·송 4) 에서는 축제기간(5월 9일~11일) 동안 취미전 및 高曾 書道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同會에서는 지난달 31일 李智冠·金哲印·金雲學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宗敎生 환영법회를 여주 神勒寺에서 가졌다。

## 敎育大學院 古蹟답사및 세미나

敎育大學院 학생회(회장=張炳根·윤리교육전공) 주최 「고적답사및 야외세미나」가 지난 8일(日) 鄭在覺·金鍾遠원장 및 高曾 書道展을 가졌 예술과 취미전 관계 교직 총장을 비롯한 관계 교직 원과 신입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늘봄농원에서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알두고 행한 이번 답사에서는 인근지역의 고적답사와 세미나가 있었으며 또한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韓國敎育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축연도있었다。

釋林 趣味展 준비

釋林會(회장=朴眞覺·송 4) 에서는 축제기간(5월 9일~11일) 동안 취미전 및 高曾 書道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證券講演會 개최

### 11日, 이면선 敎授 演士로

經商大學 대대 (대대장=이영하·貿易 4) 에서는 오는 11일 증권강연회 협찬으로 「증권강연회」를 개최한다。

국민경제와 기업규모의 확대로 증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생들의 증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해 마련된 이번 증권강좌에서는 이면선 (본교 대학원강사) 교수의 강연에 이어 증권홍보에 관한 영화도 상연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經營大學院 新入生歡迎會 盛了

경영대학원 총학생회 (회장=崔在熙·시장관리전공) 주최 79학년도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4일 오후 4시 鄭在覺총장, 金鍾遠원장등 교직원과 신입생 재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있었다。

이날 환영회는 鄭총장의 격려사, 金鍾遠원장의 격려사와 총학생회장의 축사, 신입생 朴泰權회장의 답사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환영회에서 재학생들은 신입생에게 경영대 입생들은 경영대학원 교수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 會長에 金澈運씨

### 行大院 新入生 總會서

### 複寫機 1臺도 寄贈해

행정대학원 (院長=閔丙天 박사) 79학년도 전기 신입생 총회및 자축연이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閔원장, 朴眞覺학감을 비롯하여 교직원·신입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원 중합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신입생 총회에서는 金澈運(재무행정전공)씨를 회장으로 뽑는한편 13명의 회장단과 현정섭(계획행정전공) 유원동 30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자리에서 신입생들은 행정대학원에 복사기 1대를 기증했다。

이날 선출된 회장단은다음과 같다。

▲회장=김형순▲부회장=이영선, 홍양희, 오영걸, 최수남, 김사룡, 강영조, 권기욱▲감사=김재효, 이동복, 이대범▲총무간사=어경호▲기획간사=박효동▲섭외간사=김두용

## 美産살구나무 寄贈

### 林學科 朴敎秀교수

본교 재직 재활교양과(敎秀=洪鍾赫박사) 에서는 朴敎秀(林學科) 교수가 미국산 살구나무 5주를 기증받고 4일, 석조관 앞에 식수를 했다。

이날 식수에는 鄭在覺총장, 鄭炳武학생처장등 약10여명이 참석했는데 식수가 끝난후 同會에서는 박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식수한 미국산 살구나무는 미국의 매릴랜드주립대학에서 몇년에서 기증품을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알맞도록 朴교수가 7년동안 연구, 歸化育種시킨 것이다。

한편 朴교수는 지난해에도 회귀호두나무 폐칸(Pecan)을 同會에 기증하기도 했다。

◇朴敎秀교수 (원내) 가 미국살구나무를 기증 식수하고있는 광경.

## 慶州大 白日場 盛了

### 詩 윤성근 散文 이동수군 壯元

경주대학 신입생백일장이 本校 국어국문학회 (회장=李台珪·국문 4) 주최로, 지난 7日 (土) 경주 半月城터에서 경주대 어문학계열 신입생 6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열려 詩部에 윤성근군, 산문부에 이동수군이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이날 백일장의 詩題는 「봄」 「春日詩抄」이며, 散文題는 「새벽」 「오해」로 심사위원은 朱祿교수와 睦鎭培교수가 각각 맡았다。

한편 이날 각부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詩部

▲장원=「塔」(국문과 윤성근)▲차상=「塔」(영문과 李銀珪)▲차하=「塔」(국문과 박동환)▲장려상=「春日詩抄」(국문과 정정아)

◇散文部

▲장원=「새벽」(국문과 이동근)▲차상=「誤解」(영문과 김진경)▲차하=「誤解」(국문과 류봉)▲장려상=「誤解」(일문과 이동근)

## 佛敎敎養 特講

### 黃山德박사 演士로

佛敎大學 교양특강이 10일 黃山德박사(前문교부장관)를 연사로초청 「佛敎와現代人」이란 주제로 10일(火) 개최되었다。

李敏昌學長을 비롯한 佛敎대학 교수 및 많은 學生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양특강은 李學長의 연사소개로 시작되었는데, 黃박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아뢰야식의 마음이란 시작도 없는 먼 옛날부터 (無始劫來) 의 習氣가 축적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現實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 無意識이라는 人間內面에 깊숙히 자리한 마음은, 我執이나 利己心과 더불어 남파남을 감싸는 평등의 자리, 보편적 자리의 精神이라고 한다。

우리의 深層의 마음자리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함께하고 있고, 善과 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職士의 淨士의 共存이다。우리는 參禪을 하면서, 念佛을 하면서, 이 淸淨한 극토(佛國土)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無意識이라는 人間內面에 깊숙히 자리한 마음을, 我執이나 利己心과 더불어 남파남을 감싸는 평등의 자리, 보편적 자리의 精神이라고 한다。

우리의 深層의 마음자리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함께하고 있고, 善과 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職士의 淨士의 共存이다。우리는 參禪을 하면서, 念佛을 하면서, 이 淸淨한 극토(佛國土)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李永子>

## 敎授動靜

◇幸奉善 (工科大) 교수=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在歐한국과학기술자 연합회 공동주최로 10월부터 19일까지 영국대학에서 열린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 참가, 13일 化學·化工·食品工學分科에서 「감자의 유리및 경화지질의 조성에 관한 연구」란 연제로 주제發表 예정.

◇이달 10일 예비과정에서 삼국물리의 예비과정에서 열린 「삼국물리의 기상 어린 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김재효교수가 「물리와 佛敎」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달 10일 예비과정에서 열린 「삼국물리의 기상 어린 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김재효교수가 「물리와 佛敎」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달 10일 예비과정에서 열린 「삼국물리의 기상 어린 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김재효교수가 「물리와 佛敎」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社告

## 敬修記者 募集

大學言論暢達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참신한 男女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將次 言論界로 進出하고자하는 뜻있는 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약간명 (慶州大포함)<일반·寫眞·만화·컷記者>
②應募資格=本校 1學年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본사소정양식 1통 (배부중)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79年 4月1日~4月13日
⑤시험일자및 장소=79年 4月14日 (土), 오후1시 J101
⑥시험과목=國語 英語·作文·面接
⑦제출처=본사 총무부
※修習記者는 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慶州大는 경주대 교무과에 문의 바람.

1979年 4月 日

東大新聞社

## 大學言論의 旗手

## 接受마감 13日로 迫頭!

## 「東國祝典」일정 確定

### 5月8日 前夜祭, 5日間

東國人의 지성과 낭만을 꽃피울 「東國祝典」이 오는 5월8일 개교기념식과 前夜祭를 필두로 개막,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거행될 예정이다。

「東國祝典」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호국단 (사단장=金銀億·경영 4) 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각 행사 써클및 대대별 축전행사 계획을 접수, 마감하기로 했는데 행사의 취지및 내용과 세부비용 명세서를 첨부한 구체적이고도 창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수되기를 바란고있다。

한편 금년축제부터는 오락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 「學術祭」는 축전의 전야제로 설정하여 학술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는데 학술제는 전야제가 있기 전인 4월30일부터 5월1주간에걸쳐 종교, 인문, 자연과학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호국단에서는 「예술제」는 예년의 단편적이었던것을 지양, 같은 유의형태로 한 축제를 하루씩 중점적으로 개최하여 연관성있고 계획성있는 축제를 진행하기로했다。

## 12日 敎生 오리엔테이션

### 16日부터 敎生實習 實施

오는 16일(月) 부터 4주에 걸쳐 식지월 79학년도 교생실습에 대비, 종합오리엔테이션이 오는 12일 9시30분 중강당에서 열린다。

사범대학생과 기타 교직과정이수자등 교생실습 신청자 4백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오리엔테이션에는 김성배師大학장을 비롯 관계교과담당교수가 연사로 나서서 실습 전반에 걸친 상세한 지도가 있게된다。

사대부속중·고교, 명성여중·고교를 비롯 사대협력교에서 실시될 이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교무과에서 「교생실습 확인증」을 수령,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 「POST」記者 募集

### 19日까지 願書接受

본사 자매지인 英字新聞 (The Dongguk post) 에서는 대학언론의 창달에 기여할 남녀수습기자를 1학년생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응원서 교무및 접수는 19일까지 포스트紙 편집실에 직접 갖고 있으며, 시험은 오는 20일(金) J402에서 영어와 면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P·T·P 美軍招請 방문

### 7日, 親善體育大會 개최 合意

본교 P·T·P (회장=고정대물리·3) 에서는지난 7일(土)본교 P·T·P와자매결연을맺은 美軍 개리슨 캠프(캠페소재) 를찬선 방문, 美軍 P·T·P측에서 마크린 가족이 참가했다。

「People to people」이라는뉴·호로 만남의 의의를 담당해온 同會에서는 작년 9월 10일 자매결연을 맺은 게리슨 캠프측과 매년 상호 초청, 교류를 가져왔었다。

이번 방문은 오전 11시 스쿨버스편으로 出발, 오후 1시 원맞이 환영회가 지난 4일 오후 4시 학생회관 제3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白華欽(法政大)지도교수와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엔테이션, 장기자랑, 다과회및 포크댄스 강습, 새로 창단한 보컬그룹 연주회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모리박사 일행은지난 4일 鄭在覺총장을 예방한후 忠州 內金面 봉황리 소재의 「마애반가상」을 조사하고 지난7일귀국했다。

## 東友會歡迎會

### 4日, 學生會館서

프로젝트 등우회 (회장=안일환·전자 3) 의 신입부원맞이 환영회가 지난 4일 오후 4시 학생회관 제3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白華欽(法政大)지도교수와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엔테이션, 장기자랑, 다과회및 포크댄스 강습, 새로 창단한 보컬그룹 연주회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 2名來校, 의견교환

### 日, 佛像硏究學者

본교 韓·日佛像硏究會 (대표=黃壽永박사) 초청으로 日本 모리·히사시(毛利久·神戶大 교수·불교미술) 박사와 다무라·엔조(田村圓澄·九州大 교수·불교사) 박사가 지난3일 來校, 半跏像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모리박사는 日本國寶1호인 半跏思惟像이 신라에서 만들어 보낸것이라고주장했는데 그근거로 재료가 赤松인 점, 彫刻양식이 한국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金銅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같다는것, 그리고 「日本書紀」의 기록과 연대가 일치한다는 것을 들었다。

한편 모리박사 일행은지난 50여명이 출발, 기념식을 갖고 상호 기념품 진달, 박구시합등이 있었으며, 오는 5월말에는 본교 P·T·P측에서 친선체육대회를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 모든 企業이 英語實力者를 찾고 있읍니다!

時事英語硏究 5월호 값1,000원

▶이달의 名画◀ 디어헌터 (※「時事英語카셋트」에 全量 녹음수록)

WILL WORLD WAR Ⅲ COME IN THE 80's? 80年代 3次大戰은 불가피한가? ····· James Farmer
Interview with Alvin Toffler 20世紀 科学革命과 新文明社会論 ····· Alvin Toffler
Of Utopianism And Intellectuals 西欧 知識人의 幻想과 유토피아의 虛構 ····· Eugène Ionesco
The New Shape of Education 教育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 Peter Drucker
Celebrating Einstein 科学者 아인슈타인의 人生·哲学·科学世界 ····· W. Stockton

Welcome to ENGLISH 英語会話 제10회
考試英語 考試英語予想問題 ··· 오제운
時事英語社
Word Power 特講 ··· 丁喜鎭
MEN & IDEAS Piet Botha ····· 梁棨宝
英作敎室 就職英作文講座 ····· 金用瑛
佛語誌上講座 〈제29회〉 프랑스文化館

英語世界 5월호 값900원

主要記事
The Art of Retirement 〈멋지게 물러나는 秘訣〉
Ah, Solitude 〈아, 孤独이여〉
Naming Moon's Features 〈名士들로 붙비는 달 표면〉
特報 Answers to Biblical Blanks
Lillian Carter: My Life in the Peace Corps

新連載 Letters from the Earth (허나님 몰래 읽어보는 편지)
連載 영역고전 (近思録) / 단편 / 영어 실력향상 강좌 / 사색과 명상
American Slang ★英世 Humor
敎養講座 팝송: Billy Joel과 Neil Diamond 스포츠: The Psychic Side of Sports
映画台詞 SUPER MAN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서울:(269)6624~5 (265)0509 부산:(43)3007 (42)0163 광주:(2)2376 대전:(2)4370 대구:(44)6743 인천:(2)5143 전주:(2)3849 수원:(5)9316

「時事英語硏究」創刊 20周年 紀念事業
뉴우월드 韓英大辞典
THE NEW WORLD COMPREHENSIVE KOREAN-ENGLISH DICTIONARY
★大学生의 財産目録 第1号★
韓國最初의 韓英大辞典 드디어 時事英語社가 完成!
—企業의 対外 業務를 신속·정확하게 돕는 活用本位·例文中心의 Instant 英文 書翰 作成 辞典—
輸出 $1億때는 콘사이스, $100億이 넘어서는 大辞典으로!
—「信用状」「価格」「送状」「오퍼」등 貿易用語에 가장 많은 例文을 실은 輸出立国의 바이블—
本書의 特長
□ 活用本位·例文中心의 실용사전
한국인이 英語로 글을 쓸 때 부딪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여 풍부한 連語·成句·full sentence 例文으로 활용의 실례를 편리하게 제시한 「인스턴트 英作文사전」이 되게 했다.
□ 貿易実務者의 Business Correspondence를 위한 商用例文 満載
이 백사전은 「信用状」「오퍼」「価格」「船積」등 무역용어에 특히 많은 실용예문을 실어, 즉석에서 원하는 商業書翰이 작성될 수 있도록 특별기획했다.
□ 英語다운 英語, 정확한 語義풀이
英語語 하나 하나의 뜻을 영어다운 영어, 정확한 영어로 훌륭게 풀이했고, 특히 우리나라·고유의 것에 대한 영어풀이는 英英人이 곧 알아 들을 수 있는 영어가 되도록 친절한 감수를 거쳤다.
□ 時事新語·과학기술 専門語·学術語를 총망라
「多国籍企業」「経済水域」「附加価値税」등, 국어 백사전에도 아직 수록되지 않은 시사신어를 모두 수록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専門語와 学術語를 총망라 했다.
4·6倍大型版 2,531面/二段組 各段 80行
高級인도지 옵셋印刷/견고한 洋装製本 케이스入/값 35,000원
時事英語社 (269)8823 (75)5064 (266)6795 (269)6621~3 부산(43)3007 대구(44)6743

# 캠퍼스의 美化와 造景

社·說

지난 5일은 식목일이자 청명이었다。이 날을 전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나무심기가 한창이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라 일손이 바쁘리라 여겨진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때를 맞아 캠퍼스 여기저기에 나무를 심었다。특히 퇴계로 쪽 후문의 보기흉했던 석축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꾸며진 모습은 한결 신선하고 부드러운 감을 준다。

이와같이 생활 주변의 환경을 그것을 어떻게 꾸미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낌도 달라진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오우엔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다。즉 사람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며, 창조적 능률적인 사람도 되고 비능률과 파괴적인 사람도 된다는 결정론적인 말이다。

환경에는 자연을 포함하여 인공적 시설 및 물자등의 유형적 환경과 제도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등의 무형적 환경이 있다。그 가운데 조경이 가지는 의의는 인간의 정서순화와 심성형성에 매우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다。하물며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있어서 캠퍼스의 환경미화가 그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함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그러기에 캠퍼스의 미화는 전시적이거나 사치의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인격의 형성과 정서및 창조적 능률의 재생산부자라는 범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교의 그간에 시행된 캠퍼스 조경을 돌이켜보고 반성할점을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교 캠퍼스는 최근들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뚬 더 장기적인 계획하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아무데나 나무를 심고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고해서 그것이 바로 조경이 되는것은 아니다。그래서 잡비산 시설물의 설치가 오히려 볼품이 없고 애써 심은 나무들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경우도 있을수 있는 것이다。

캠퍼스의 조경을 위하여 돈이 구획을 나누어 녹화면, 첫째 출입문과 여기에서 대학본부에 이르는 길목이고, 둘째는 대학본부와 석조관, 도서관으로 둘러싸인 잔디밭과 그 주변이며, 세째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출입문의 경우는 학교의 얼굴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우리 학교는 출입문이 세군데나 있는데 어느 것이 정문인지를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특히 퇴계로 쪽 출입문은 「후문」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바 학교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후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어딘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법인간판과 학교의 간판은 재향군인회 쪽 출입문에 걸려 있는가 하면, 자동차편으로 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영장쪽 문을 이용한다。특히 수영장 쪽의 문은 학교의 표지도 없이 철망으로 영성하게 세워져 마치 울타리의 일부처럼 되어있는 바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의 귀한 손님들도 이 문으로 들어와 우왕좌왕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그날 따라 공동일이 쉬는 날이었던지 아홉명 萬海선생이 나간 지 10분도 채 못돼 돌아오다가 노랫소리를 들고 노발대발 화를 냈다。

당시 유행가는 물론 전부 일본말로 부르던 노래 중에는 우리말의 獨立軍歌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노래」라고 불렀다。간도사관학교 노래들이었음니다。「노래 (학교간)의 주가 (學校歌)」「東滿大 阪江江」 오동발도 치고 「들어」 등의 노래였는데, 「동경 대판 치고…」의 노래 후렴에는 「나가서, 전쟁장으로。나가서, 전쟁장으로。이천리의 이천만번을 죽더라도 나아갑시다」하는 귀절이 있지요。우리는 이런 노래를 몰래 불렀고 부르곤 했었음니다。그러다가 중에는 잡혀가는 학생들도 있었음니다。

호적도 없고 일본말도 몰라

鄭=萬海선생은 일본말을 전혀 못했던가요?

趙=들을이지요。알아 듣지도 못하는 禪學院에 있을 때 그는 글도 많이 썼읍니다。「獨立의 꿈」같은 것이 있었는지 (미)놓지보나 조금 더 알을 줄이)에 봇을 사용하였지요。그 때 金觀鎬가 젊은 나이로 新聞社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 시설을 대주고 있었고, 그 신문물을 白性郁, 金法麟(우분 모두 本紙의 前總長) 박사가 맡아했지요。그 때가 3·1운동전의 獨立軍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獨立軍들에게 밀정으로 오인을 받았지요。萬海선생을 밀정이라고 저격했다 합니다。그것이 원인이 되어 목이 얽편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합니다。

鄭=선배선생이 運動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 때 선학원에서 그들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있었고, 그 신문물을 白性郁, 金法麟(우분 모두 本紙의 前總長) 박사가 맡아했지요。그 때가 3·1운동전의 얼굴입니다。한번은 萬海선생이 獨立軍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獨立軍들에게 밀정으로 오인을 받았지요。萬海선생을 밀정이라고 저격했다 합니다。그 때 총 맞은 곳이 목 언저리였고, 

# 萬海의 再照明

## 韓國近代史의 巨人, 그의 탄생 100주년 紀念特輯

올해로 萬海 탄생 1백주년을 맞았다. 그는 우리가 잘 다 아다시피 불교 전신인 明進學校 제1회 졸업생이며, 역시 불교 전신인 中央佛敎專門學校 강사를 역임한 불교와는 멀리하여 볼 수 없는 불가분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가 한국근대사에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그의 사상의 편모를 일부나마 밝히기 위한 기획을 하는 소이가 있다. <편집자 주>

◇外國人이 본 萬海

J. C. 홀라한
<韓國名·전장한·英國人·文理大 강사>

## 自由精神

필자는 철주교회의 신부로서 한국에는 1969년 가을에 왔었다. 이후 3년동안 이나라에 있다가, 1972년 1月 본국에 돌아갔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어를 공부하며 설교에서 일했고 여행을 많이 하였다. 여느 이름난 친구 신부 몇 사람 하고 같이 강원도 설악산을 가볼 기회가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사들과 연불하는 소리들을 난생 처음에 보게 되었고 그것을 봄으로 하여 내가 동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름다는 사실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 때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를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성당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한국을 떠나기 조금밖에 못우지 못했다. 그전 후로는 영국 런던시의 환자 상담자로서 4년간 일하다가 다시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런던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맡지 지도 교수는 W. E. Skilland 박사였는데 그분이 나에게 「만해—한용운전집」을 소개해주면서, 만해가 불교혁학자로서 한국독립운동가로서,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어려 면으로 훌륭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전집을 읽고 일깨워 주었다.

필자는 「한용운의 생명과 작품」의 이름은 만해스님의 평화사상과 독립사상이 모두 그는 이 불교에 있어 사상가라는 이 불교에서 나온 만해의 독특한 맨 처음 이 불교세계의 유신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만해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말하기를 「불교의 기본적인 노릇을 들로 나눈수가 있다고 했다. 첫번째의 교리는 평등주의이고, 두번째 교리는 구세주의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용운의 평등주의는 서양의 철학자들의 평등주의와 여간 다르지 않다. 서양에서의 평등주의는 한편으로 극단의 개인주의의 큰 각인이며, 또는 한편으로는 식민주의의 극제적 원인이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나쁜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민족주의의 극복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인 무명공포과 확장에대해 계속 논의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일본은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잔대국의 전형이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만해스님은 다시 말한다. 「자유가 없는 생활에 기쁨과 재미가 없는 것은 죽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만일 한 사람만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는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자유가 그렇게 말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해스님은 한국독립운동의 이념을 자유라고 했다. 자유를 위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민족이 그 목표를 달성할때까지는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만해스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 자유란 「나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라야 했다. 「나」는 나네로 남을 희생하는 없다고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인 것이다.

## 自由통한 救世主義 실천

## 「西洋의 「個人」超克한 自由

가능한 가장 나쁜 고통을 견디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만해스님은 「구세주의」의 정신에 대해 민족주의의 대두와 또 자주적 국력을 확대하기 위한 야비한 수단 하나인 무명공포과 확장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일본은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잔대국의 전형이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만해스님은 다시 말한다. 「자유가 없는 생활에 기쁨과 재미가 없는 것은 죽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만일 한 사람만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는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자유가 그렇게 말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해스님은 한국독립운동의 이념을 자유라고 했다. 자유를 위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민족이 그 목표를 달성할때까지는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만해스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 자유란 「나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라야 했다. 「나」는 나네로 남을 희생하는 없다고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인 것이다. 이 어떠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전승할 바이다.」

(中略)

내가 감히 일본의 爲政者에게 책하노니 이는 조선인의 입장으로서 말함이 아니오 일본인 입장으로서 말함이 아니오 나라는 조선인의 국가는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본 것이다. 여기서 萬海의 일면을 엿볼수 있는 자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 것은 自存性에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인간본연의 功能이 아니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상대를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여 개전하도록 한것은 觀音의 慈悲心이 돌보이는 救世主 義思想이다. 萬海는 다음과 같이 日本爲政者를 타일렀다.

『병합후 10년간 소위 총독정치를 살피건대 각방면에 향하여 조선인의 의하여 조선의 전체 구속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으니, 이제 중요한 것 4, 5개를 들진대 ①은 조선인의 일반 자유를 박탈하며, ②는 노예적 교육제를 채용하며, ③부자격자(不資格者) 관리 등용을 행하며 ④는 헌병경찰을 設置하여 ⑤는 조선인 착별대우가 이 어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전승할 바이리오.』

(中略)

萬海는 1920년 9월 25일 동아일보 「고문정치 독립하자」 제목 소장 公訴狀判記를 보자.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어떠한 나라든지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망국시킨 것이 아니오. 우리나라가 수백년동안 부패한 정치와 조선민중의 편견문국의 뒤떨어진 것이 합하여 망국의 원인이 된것이오. 원래 이 세상의 개인과 국가를 물론하고 개인은 개인의 자존심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자존심이 있으니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 압박으로 생긴것인줄 알지말 아니라 하여 자각하고 참 뿐 아니라 평화의 중진도 발지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4천년이나 절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언제까지든지 남의 노예가 될 것은 아니다. 그말을 다하자면 실히 장황하므로 그것을 자세히 다 말할수 없으나 만일 지방법원 검사장의 부탁으로 「조선독립론」 「검사장」이라는 것을 감옥에서 지은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면 다 알듯하오.』

## 自尊意識에 기반둔 行動

## 새 歷史照明의 예광탄 구실

개인의 자존심이 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자가 많다. 그러나 공적인 자존심이 훼손되면 도외시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인 것이 그렇다 만다. 국가의 자존심을 헌법적인것이 3·1운동이다. 관관기록은 위풍당당한 萬海의 精神으로 독립할수 있다. 萬海의 自尊意識은 一切衆生의 識有佛性에 입각한 것으로 개개인의 속성은 그 힘의 강약을 막론하고 모두 인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잘못가진 힘의 강세로서 약한자나 약소국을 침해, 강점하려는 것은 인간본연의 功能이 아니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상대를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여 개전하도록 한것은 觀音의 慈悲心이 돌보이는 救世主 義思想이다. 萬海는 다음과 같이 日本爲政者를 타일렀다.

『병합후 10년간 소위 총독정치를 살피건대 각방면에 향하여 조선인의 의하여 조선의 전체 구속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으니, 이제 중요한 것 4, 5개를 들진대 ①은 조선인의 일반 자유를 박탈하며, ②는 노예적 교육제를 채용하며, ③부자격자(不資格者) 관리 등용을 행하며 ④는 헌병경찰을 設置하여 ⑤는 조선인 착별대우가 이 어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전승할 바이리오.』

(中略)

내가 감히 일본의 爲政者에게 책하노니 이는 조선인의 입장으로서 말함이 아니오 일본인 입장으로서 말함이 아니오 나라는 조선인의 국가는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본 것이다. 여기서 萬海의 일면을 엿볼수 있는 자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 것은 自存性에 있는 것이다. 이

# 小劇場運動의 問題點

박장순

藝術이라는 創造的 과업을 어떤 획일적 판넬에 의해 지배받기가 지극히 불라. 예술적 사고방식이 그 創造精神을 침해하고 위협하게 될 경우 창조정신은 마비되고 파괴되게 마련이다.

원래 小劇場이란 단순히 大劇場의 반대개념으로서〈작은劇場〉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기존의 사조에 반기를 들면서, 좀 더 새로운 연극형태를 창조해 내야만 하는 의욕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한편 機造的으로 볼 때, 小劇場은 大劇場과는 달리 연기자의 표정과 시선의 표현까지도 확실히 알게 되어 있고, 臺詞의 강약·명암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 近代劇에 있어서 앙드레 앙뜨완느, 오토 브라암 등이 소극장운동을 고취한 이유도 이러한 관객과의 직접적인 동화·교류를 의도한 데에 있다고 본다. 集團인 觀衆과 俳優인 生命體가, 주어진 劇的 狀況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진 小劇場은 이로써 더 높은 價値를 향유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演劇史的인 입장에서 고찰해볼 때 小劇場運動은 現代演劇의 중추적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프랑스의〈自由劇場〉, 장 그래인을 중심으로 한 런던의〈獨立劇場〉 베를린의〈自由舞臺〉등 歐美各地에서 商業主義를 배격하기 위해 일기 시작한 소극장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初에 진행되어졌는데, 이 양과 우리나라 小劇場運動의 양이 달랐던 것은 서양의 경우 소극장운동이 旣成演劇에 대항하는 實驗演劇의 성격을 띠었던반면에, 우리의 소극장운동은 先行하는 이렇다할 旣成演劇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연극에 솔솔심기 위한 일종의 전부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극장운동은 그것이 단지 소극장에 국한한 운동이었다기 보다도 우리연극을 통털어 유일한 활동무대였다는 점이 서양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다.

演劇이 발전하려면 많아야 하고, 소극장을 통해서 시대변천에 따른 참신한 연극이 창조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創造를 하게 되는 것은 映像藝術과 舞臺藝術을 한데 묶어 놓은데에있다.

영화나 텔레비전은 이미 大企業化되어있고 한번의 촬영이나 녹화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지만, 演劇은 수십명이 펼쳐지는 경우에 있어 小劇場의 경우 연습하여 小劇場의 경우 수백여명의 관객을 불고 공연을 하게 되므로 收益性이란 거의 없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영화관과 연극장의 概念은 상당히 구별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設備施設과 施設基準도 기본적인 映畫館과는 달리 다목적 和되어져야 할것이다.

한나라의 演劇은 언제나 大衆과 호흡을 같이하는 大劇場 演劇과 새로운 모달, 새로운방법, 새로운 감각을 찾는 소극장 연극이 竝存해야만 바람직한 것이다. 실험성을 띤 소극장 운동이 갑작스레 일었지만, 상업주의 만이 난무하게 될것이며, 演劇은 낙후되고 타락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러한면에서 출발했다고도 볼수 있는 우리의 小劇場 精神이 리얼리즘을 복착화시키고, 새로운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있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것은 공연집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본다. 公演場이 늘면 늘수록 各 劇場과 劇團이 흥행이나 실익만을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공연을 행함으로써, 연극이 대중의 기호나 감각만을 쫓아 大衆과 영합하게되 커지기 마련이다. 근래에 와서演劇作品名의 무질서한 난립은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물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地方演劇의 육성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서울을 中心으로 하는 文化의 中央集權化는 文化發展의 획일화 및 협소성을 초래하게 되고 文化의 다양성과 문화생활의 국민적 균등화라는 오늘의 과제에는 제성을 저기하게 되고 말았다. 中央劇團에 의한 지방순회공연이 지방觀客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지방연극인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지방연극 발전의 활구책은되지 못한다고 본다. 오히려 지방연극은 지방소극장을 중심으로 各 地方의 特性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문리대 연영과>

# 對抗할 旣成演劇없이 出發

## 대중 迎合風潮·地方劇 침체등 곤란

## 公演法개선 시급…企業化한 映畫와 구별

#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李成範·金鎔貞 共譯

主觀的 작재력을지닌 東洋思想과 客觀文藝的이며 動的인 西歐科學文明의 와중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科學技術의 발전으로 물질문명이 풍요해지자 人間의마음과 정서를 경시하는 思潮를 만나게 되었고, 物慾의 팽창의 갈등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지못하여 고뇌와 불안에 싸여 鎭精제나 수면제 의 신세를지는 환자의 수도 격증해 가고있다. 마음의 物心의 조화를 이루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자연의 진리들이 하나로 歸一된다면, 東洋思想과 西洋科學의 이질적인 두思想이 서로 緩衝化되어 새로운 사상으로 창조되고 이것이 체계화될때 보다 폭넓은 대자연의 진리를알 수있다. 첫째 物理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하더도 然에 확한 친화감과 그의 극히 어려움이 없이 이해할수있도록 전문에술적 자태에 감명을 받게 하기 쉽다고 믿는다. 그리고 著者가 용이하도록 用語의 적절한 홀선 백과 설명, 그리고 훌륭한 문장력으로 일반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자들에게 호응과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汎洋社刊·3백96면·3천원〉

<사범대 국교과>

# 낯가운 세계에서

李昌植

<Ⅱ>

한 사람의 눈 높이에는
베어진 音響,
그 자리가 아무는 동안
눈보라가 鬼神 대신 떠돌아 내린다.
눈발도 산울림 타고
한 사람의 허리께를 시리게 내린다.
틈날이 움직일 때마다
틈밤 대신 흰 눈이 떨어진다.
그때마다 빈 산비탈 밤 가운데
허수아빈 외발 다시 선다.
그 발등에는 소복소복 눈발이 내렸다.
疾走하던 한 사람의 곰을
확인하는 이 겨울 나절에.
나는 여전히 아랫목에서 凍傷 걸린 발목을 잘라내지 못하는가.

<사범대 국교과>

# 한과 勇氣를 주소서

李容周

校長선생님도 계시겠지. 보고 싶다. 낙파장선생님을 뵙고싶다. 사랑들은 마치 개미처럼 밀려있기도 하고 떼지어 올 때가 꼬맙다. 해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몰라. 길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먹을 것을 찾아야 해. 학교지는 意識에서도 自信과 방랑과 에지를 함께한 젊은 敎授님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돈다.

「Professor: 좀더 용기한말로 해보면…!

그 교수님의 안광은 번쩍이며 빛나고 세치 혀는 고끼의 힘을 갖고 있었다.

진열장의 현란한 불빛에 눈려 홀어진는 어둠속 괴롭순경의 바쁜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달리는 버스를 쫓아나도 함께 달린다. 이것도 치열한 生存競爭이라고 할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러셨어.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갈 수있는 세상이다』 깨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선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집꽉처럼 버스에 몸을 싣는다. 언제나 이 時間이면 쉬는 사람들과 얼에 지친 사람들로 버스는 만원이었다.

나는 요술파오를 타고 있었다. 높게는 지붕위를 스치며 높게는 구름위를 나르는것이 스릴도 있고 아주 아주 즐거웠다. 바람은 시원하고 가고싶은 곳을 마음대로 날수 있으며 발하래 경치에 心醉하기도 하였다. 저아래 朴 校長선생님도 계시겠지. 보고 싶다. 낙파장선생님을 뵙고싶다. 사랑들은 마치 개미처럼 밀려있기도 하고 떼지어 올 때가 꼬맙다. 해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몰라. 길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먹을 것을 찾아야 해. 학교지는 意識에서도 自信과 방랑과 에지를 함께한 젊은 敎授님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돈다.

「Professor: 좀더 용기한말로 해보면…!

그 교수님의 안광은 번쩍이며 빛나고 세치 혀는 고끼의 힘을 갖고 있었다.

진열장의 현란한 불빛에 눈려 홀어진는 어둠속 괴롭순경의 바쁜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달리는 버스를 쫓아나도 함께 달린다. 이것도 치열한 生存競爭이라고 할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러셨어.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갈 수있는 세상이다』 깨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선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집꽉처럼 버스에 몸을 싣는다. 언제나 이 時間이면 쉬는 사람들과 얼에 지친 사람들로 버스는 만원이었다.

나는 요술파오를 타고 있었다. 높게는 지붕위를 스치며 높게는 구름위를 나르는것이 스릴도 있고 아주 아주 즐거웠다. 바람은 시원하고 가고싶은 곳을 마음대로 날수 있으며 발하래 경치에 心醉하기도 하였다. 저아래 朴

# 隨筆

## 라면으로 때운 저녁의 虛氣속에도 번쩍이는 敎授님의 眼光이…

배가 고프다. 해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몰라. 길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먹을 것을 찾아야 해. 학교지는 意識에서도 自信과 방랑과 에지를 함께한 젊은 敎授님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돈다.

「Professor: 좀더 용기한말로 해보면…!

그 교수님의 안광은 번쩍이며 빛나고 세치 혀는 고끼의 힘을 갖고 있었다.

진열장의 현란한 불빛에 눈려 홀어진는 어둠속 괴롭순경의 바쁜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달리는 버스를 쫓아나도 함께 달린다. 이것도 치열한 生存競爭이라고 할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러셨어.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갈 수있는 세상이다』 깨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선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집꽉처럼 버스에 몸을 싣는다. 언제나 이 時間이면 쉬는 사람들과 얼에 지친 사람들로 버스는 만원이었다.

나는 요술파오를 타고 있었다. 높게는 지붕위를 스치며 높게는 구름위를 나르는것이 스릴도 있고 아주 아주 즐거웠다. 바람은 시원하고 가고싶은 곳을 마음대로 날수 있으며 발하래 경치에 心醉하기도 하였다. 저아래 朴 校長선생님도 계시겠지. 보고 싶다. 낙파장선생님을 뵙고싶다. 사랑들은 마치 개미처럼 밀려있기도 하고 떼지어 올 때가 꼬맙다. 해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몰라. 길은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먹을 것을 찾아야 해. 학교지는 意識에서도 自信과 방랑과 에지를 함께한 젊은 敎授님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돈다.

「Professor: 좀더 용기한말로 해보면…!

그 교수님의 안광은 번쩍이며 빛나고 세치 혀는 고끼의 힘을 갖고 있었다.

진열장의 현란한 불빛에 눈려 홀어진는 어둠속 괴롭순경의 바쁜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달리는 버스를 쫓아나도 함께 달린다. 이것도 치열한 生存競爭이라고 할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러셨어. 『선택을 해야만이 살아나갈 수있는 세상이다』 깨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선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집꽉처럼 버스에 몸을 싣는다. 언제나 이 時間이면 쉬는 사람들과 얼에 지친 사람들로 버스는 만원이었다.

나는 요술파오를 타고 있었다. 높게는 지붕위를 스치며 높게는 구름위를 나르는것이 스릴도 있고 아주 아주 즐거웠다. 바람은 시원하고 가고싶은 곳을 마음대로 날수 있으며 발하래 경치에 心醉하기도 하였다. 저아래 朴

# 메아리

▲곧 4·19의거 일이 돌아온다. 데 근해 이 대회를 지 19돌이 돌아온다. 데 근해 이 대회를 지 본교에서는 이날 켜 본 사람이면 다소의 을 기념하기 위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 해서 『東國人』 發 지 간해 버리기에는 안 行하여 『4·19의거 기념 타까운 점이 있을 것이 대회』를 개최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정 한다. 지난 70년 도에 시작한 이 작 4·19란 말이 어느 등산대회는 금년 누구의 입에서도 발언되 으로 꼭 10회를 맞이하 지 아니 한다는점이다. 게 되었으며, 그동안 학 분명히 4·19의거 기념 생들의 심신단련과 4· 행사이면서도 이 대회의 19의거의 정신을 계승하 기념사에서조차 그 말이 기 위한 노력을 환번도 나온 적이 부나마 잔잔해나였 없음을 우리는 잘 다. 앞으로도 이대 알고 있다. 것이 회는 계속될 것이 다. 이 말의 뜻 고, 이대회 소기의 은 이 대회가 4 목적을 위해 꾸준 ·19정신을 도의시 히 발전해 나갈것 한다는 의미는 아 을 믿어 의심치않 니다. 성령 그런 는다. 이젠 참가 정신이 구태여 발 인원도 1백50여 언되지 않아도 우 명에 불과하던 그들의 리 모두의 가슴속에 4 야말로 백년살아하게 살 ·19정신의 계승이라는 東國人의 精神이 되어 행사가 목적이 촉진해 있어서 가고 있다. 학생 진하한 일 의식, 또는 사무실에서 이겠다. 그러나 이 날 면학으로, 격무로 지친 만을 4·19정신이 아무 심신을 맑은 山水물 옆 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나에 거느리고 단 하루 뿐 것이 하나도 없을것 만이라도 4·19의거의 같다는 점에 착안점때 인민주 발육제에 참거했던 기념행사이면 인 우리의 선배나 동료 게 제발 『4·19』라는 불 들 생각하면서 그 정신 과 두세 글자를 꼭 명 을 되새긴다는 것은, 그 여 줄 것을 판게 말속 만큼 개인을 위해서나 이에 촉심으로 바라마지않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는다.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政>

# 한가지 제언

# 短篇小說

# 哨兵의 나팔

高光旭 作

釋道守 〈印藝〉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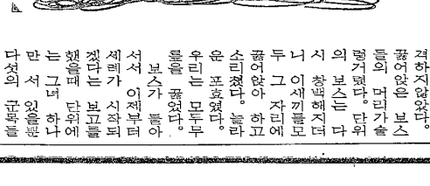
우리중의 하나가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었다. 그가 갑자기 큰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모두는 저절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믿을수 없었음에도 세레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스는 말했다. 이것을 기회로 한다는 믿음을 갖게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또 하나가 소리쳤다. 그는 믿음을 갖기 싫으면 어떻해야 하느냐 물었다. 보스는 잠시생각하더니 그렇다면 그만두어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러자 다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질문했던 그는 믿고 말고는 아무래도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욱쩍거렸다. 숨을 들여쉬는 보스의 옷깃을 군뇩(羣牧) 하나가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군뇩들은 우리가 모두 모이자 전열에서 나와 열계단을 내려오며 하면 에기를 마저 끝내서 유쾌하다는듯 서로 웃었었다. 그들은 미소를 지은채 그 문답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에의 군뇩은 보스에게 무엇인지를 말하며 두 손으로 한 음금의 모양을 만들어 따로 놓는 시늉을 해 보이자 보스는 얼신 고개를 끄덕였다. 보스가 두어마디 더 물자 그는 끄개를 가로 저었다. 보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지껄이기 시작했다. 세레를 원하지 않으면 따로 모여서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때 관측에선 그녀를 태운 꺼여운 지이포가 꼬리에 먼지를 날리서 언덕길을 굴러 내려왔다. 우리의 눈길은 자연히 그녀쪽으로 향했다. 만약 어떤 보스가 그 그녀의 모양을 보았다면 그는 뛰정 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군뇩과 보스 하나에게 인사를 건네였고, 목례하서 있는 우리쪽에는 놀랐다. 황사속에서 찢던 그녀의 미소는 가슴 지릴하게 아꺼왔던 바였다. 그리나 우리는 분노적으로 어떤 위험을 느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당해 있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를 소유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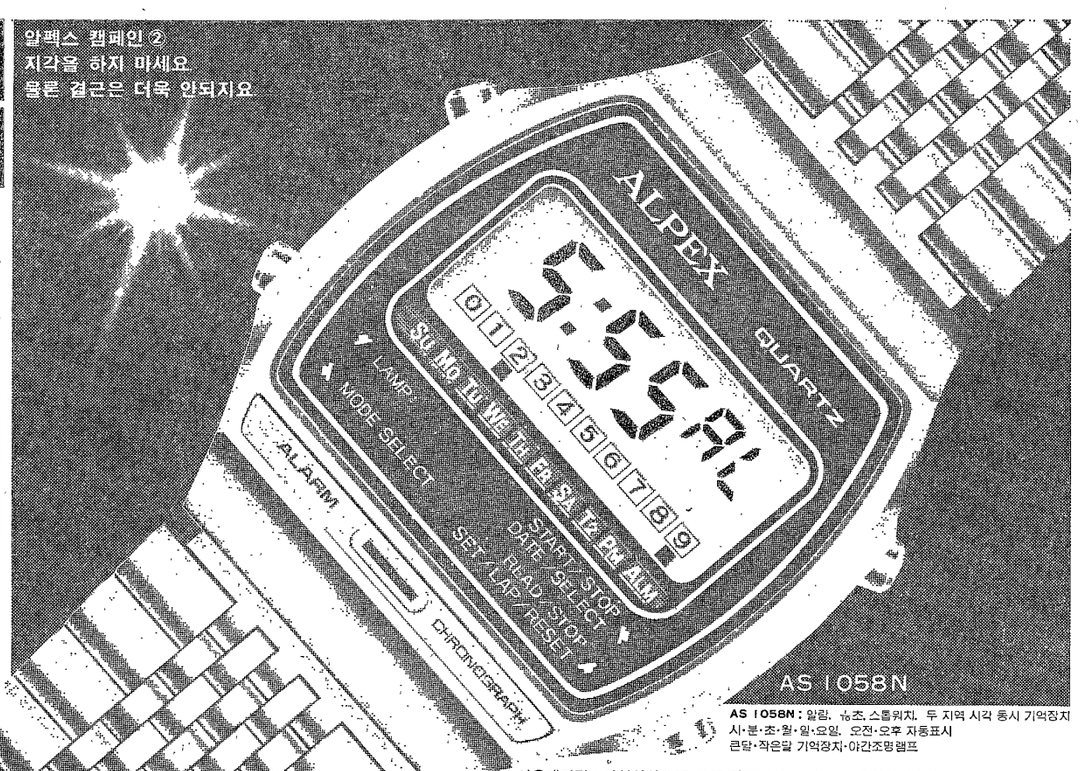
보스의 지혜로도 눈치 채이지 않는 천연스럽이 있었다. 갑자기 분연한 기운과 함께 우리는 웅진하는 병정개미처럼 흩어져버렸다. 우리의 행동은 심연같은 파국을 의미했다. 노여움이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황홀하게 했다. 우리가 흩어져버리자 지휘를 맡았던 보스가 가장 당황을 했다. 군뇩들도 손을 잃은로 마주쥐었다. 그녀는 웃치을 어라 설명을 했다. 바보잖이.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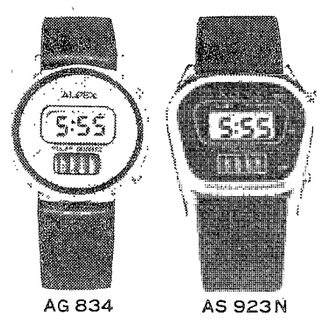
보스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예의-속 질서였다. 그들은 우리 그들의 의사를 언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원했다. 우리의 존비가 그렇지 못하던 그들은 아무런 명령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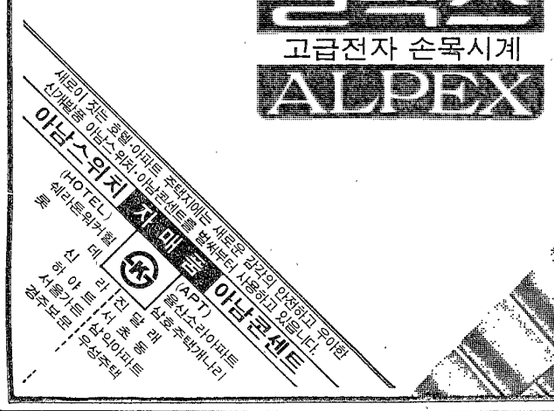
그녀로부터 무언의 꾸지람을 들은 보스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입을 열자 많이 자꾸 빨라졌다. 다른 보스들은 손가락을 꺾는다는가 그녀를 흘못거리며 서성였다. 보스는 세레의 필요성을 말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보스들은 백이 빠진듯했다. 예의 보스는 그들을 흘깃 쳐다보더니 한가지 고백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기도 이번 기회에 우리와같이 세레를 받을 작정이었다는 것이었다. 세레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그의 등을 돌려 누구나가 받아야할 어쩔수 없는 도리라고 했다. 그는 다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여러분들이 세레를 받지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또 세레를 받는데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여전히 서있자 보스 하나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다른 보스들은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이더니 곧 그의 뒤를 따라 내려왔다. 그들은 내친김이란듯 우리앞에서 무릎까지 꿇어보였다. 지켜볼 하던 보스는 얼굴이 그제야 풀려서 어쩌겠느냐는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 봤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스들이 단위에서 우리의 앞에 서서 이제부터 세레가 시작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그녀 하나만 서 있을뿐 다섯의 군뇩들이 손에 물을 쥐어 적는 것이었다.




익식이 진행되자 가느다란 한숨같은 소요가 번졌다. 군뇩들은 인간이 아닌 죽어버린듯한 얼굴로 하나 하나의 머리를 짚어나갔다. 점점 다가온 그들은 자연같은 그들은 누구인가? 그 무표정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는 위압을 무엇인가? 그들은 겉고 쫑만한 긴 척추동물의 동작처럼 느릿느릿 그러나 순식간에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 손에 쥔힌 머리는 굳어서 바르르 떨다가 뒤어 남거졌다. 젖빛 얼굴은 입속에서 무어라 주문을 날름거리며 순간을 움미하다가 금방 옆으로 손을 움졌다. 그들부터 발생한 모든과 턱이 굳게하는 차거운 심정으로 그녀는 그녀는 굳어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옷을 수 없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 표정은 갑자기 얼굴 전체 그것이었다.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은 조그만한 여우도 나눠 주지를 못했다. 모든 의식이 면학으로 지친 만을 4·19정신이 아무 심신을 맑은 山水물 옆 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나에 거느리고 단 하루 뿐 것이 하나도 없을것 만이라도 4·19의거의 같다는 점에 착안점때 인민주 발육제에 참거했던 기념행사이면 인 우리의 선배나 동료 게 제발 『4·19』라는 불 들 생각하면서 그 정신 과 두세 글자를 꼭 명 을 되새긴다는 것은, 그 여 줄 것을 판게 말속 만큼 개인을 위해서나 이에 촉심으로 바라마지않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는다.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政>

24시간에 오차0.1초
알펙스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초의 오차이면 비교적 정확한 시계라고 합니다.
1초를 소중히 여기는 — 알펙스 고급전자 손목시계 ALPEX


AS 1058N : 알람, 1/10초, 스톱워치, 두 지역 시각 동시 기억장치 시·분·초·월·일·요일, 오전·오후 자동표시 큰달·작은달 기억장치·야간조명램프


AG 834
AS 923N
AG 834 : 시·분·초·월·일 자동표시 큰달·작은달 기억장치·야간조명램프, 태양발전소자장치
AS 923N : 시·분·초·월·일 자동표시 큰달·작은달 기억장치·야간자동형광장치
알펙스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유수의 전자회사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자부품 메이커 아남산업에서 고도로 정밀한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초의 오차이면 비교적 정확한 시계라고 합니다만 알펙스는 24시간에 불과 0.1초, 한달에 3초 이내의 오차밖에 없는 고급 전자손목시계입니다.
알펙스는 77년도 시카고 세계전자박람회에서 전자시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으며, 60개국에 221만개를 수출한 정확한 전자손목시계입니다.
半導体의 元祖 ANAM 우주시대를 앞당기는 —— 亞南産業(株)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양동 151~22 TEL : (直) 44-7133 (交) 45-8991~4, 46-7411~4


● 서울대리점 : 아성상사(265)9067 아주상사(776)5191 유일상사(74)3193 안정산업(255)6847 제일사(36) 2904 함동전자(260)0742 강남상사(62)7111 정풍상사(266)3308 아진상사(267)8825, (266)0052 서보양행(267)5087 ● 부산대리점 : 국미상사(68)4393 ● 대구대리점 : 태양상사(22)7177 동아상사(44)1836 전광사(44)1392 ● 광주대리점 : 아림상사(3)7336 ● 인천대리점 : 동양당(3)9142, 6782 ● 이리대리점 : 유신상사2927, 5323 ● 청주대리점 : 천일상사(3)0918 ● 대전대리점 : 대흥상사(4)1159